

인니 젊은층 '떡볶이 열풍'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서 '떡볶이' 열풍이 불고 있다.

본래 외국에서 K-푸드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코리안 비빔밥과 치킨, 비빔밥 등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떡볶이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오주(OJU), 오미자(OMIJA), 무지개(MUJIGAE)라는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떡볶이가 주요 메뉴로 팔리고, 곳곳에 소규모 한국 분식집이 생겨나고 있다.

떡볶이가 올봄 떡볶이 맛 치킨을 출시했고, 롯데리아는 다음 달부터 떡볶이를 컵에 담아 파는 '컵볶이'를 인도네시아 22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오주 센트럴파크몰점에 만난 엔젤씨는 '클래식 떡볶이'를 먹으면서 "적당히 매운 게 좋다. 입에 딱 맞는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 식당의 주방장 로나르도씨는 "인도네시아 젊은 사람들이 외식할 때 과거에는 일식을 가장 선호했는데, 201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로는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말했다.

"샌드위치 왜 빨리 안 나와" 총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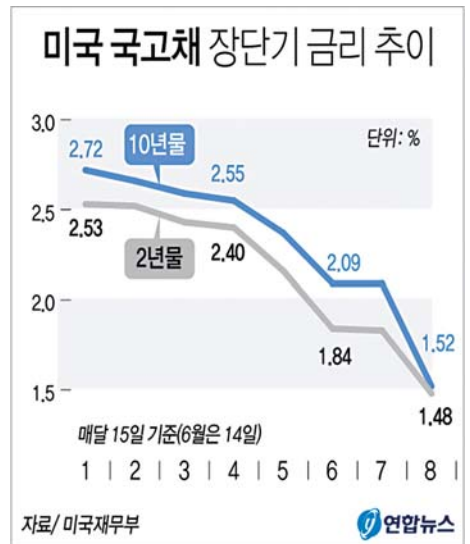
파리 교외 지역인 누이지 르그랑의 한 식당 종업원이 16일(현지시간) 저녁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객이 주문한 샌드위치를 기다리다가 화를 내며 권총을 20대 종업원에게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종업원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한 목격자는 이 고객이 주문한 샌드위치가 빨리 나오지 않자 화를 내며 총을 쏜 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그래픽 뉴스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면 대혼란” 우려

영 비밀문서 유출... 연료·신선식품·의약품 수급 차질 총리, 마크롱·메르켈에 “브렉시트 못 멈춰” 말할 듯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영국 정부의 비밀문서가 유출됐다.

이 문서는 국경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 정체와 연료, 신선식품, 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8일 영국 국무조정실이 이달 초 퍼낸 이런 내용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이들 중 관련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need to know)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랑뿔새’(yellowhammer)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문서에 대해 “이건 노딜로 일반 국민이 직면할 상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큰 합리적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이민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시위와 도로차단 등 거센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는 물류 이동이 정체되는 상황이 수개월 이어질 경우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연료 수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불해협을 통한 물류 이동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 대형 트럭들은 프랑스 측 통관 절차 강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장 2.5일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40~60%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이 문서는 예상했다.

영국 내 각 항구도 길게는 3개월까지



파키스탄 사원 폭발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퀘타 외곽의 한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16일(현지시간) 폭탄이 폭발한 직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사하고 있다.

‘심각한 혼란’(significant disruption)을 겪은 뒤에야 물동량이 현재의 50~7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서는 이 밖에도 ▲신선식품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의약품 수급 지연

▲영국과 EU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권 분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복지 활동 위축 등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시위 대응을 위해 상당한 경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이달 24~26일 프

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영국의 EU 탈퇴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군사협력 회동... ‘우의·협력’ 과시

중군사위 부주석 등 북측 환대

북한과 중국의 군사교류는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북중 우의와 군사 협력을 과시했다.

이번 북중간 고위급 군사 교류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18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장유사 중 장 부주석은 “북·중 우의를 발전시키

는 것은 양국민의 뜻에 맞고 양국 근본 이익과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한다”면서 “북·중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며 돈독히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군은 북한과 함께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공고하고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북·중 정상주의 중요한 공감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사랑 모임” ‘민주연합 브라질’ 등 사적인 모임이 시작된 릴레이 광고는 이후 브라질 한국무용협회, 민주평통 등 동포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 동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브라질 한인사회 ‘NO 재팬’ ‘NO 아베’ 동참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사회도 국내외 ‘NO 재팬’ ‘NO 아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인 동포들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 데 맞춰 지난 5일(현지

아프간서 폭발... “63명 사망·182명 부상”

자살폭탄 테러 추정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63명이 목숨을 잃고 18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내무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카불 서부 ‘두바이 시티’ 웨딩홀에서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스라트 라히미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로 63명 이상이 숨졌고 182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자살폭탄을 이용한 테러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면서 통상 이런 결혼식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이번 결혼식에 1,000명 이상이 초청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결혼식장 내부와 희생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올라왔다.

목격자 중 무함마드는 연주자들이 있던 무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인 무함마드 투판도 “하객 중 다수가 희생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올해 들어 카불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결혼식장은 시아파 소수민족인 하자라족 거주지역에 있으며, 이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거듭 발생했다.

AFP통신은 특히 아프간 결혼식장은 보안 검색이 종종 느슨해지는 탓에 손쉬운 테러 대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결혼식장 내부와 희생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올라왔다.

## 호남동 대원 빌딩 총별

#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추천 업종”

- 1 높은 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불링장,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